

## 2022년 기준 인체백신 무역수지 적자 8억 달러

- 1분기 1.2억불 흑자 이후 2분기 -0.1억불, 3분기 -1.8억불, 4분기 -7.3억불로 적자 확대 -
- 인체백신 최대 수출국은 호주·대만·싱가포르 순, 수입국은 벨기에·미국·독일 순 -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### ○ (무역 수지) 2022년 한해 한국의 인체백신 무역수지는 8억 달러의 적자 기록

- 2022년 기준 인체백신 수출은 9억 4천 1백만 달러, 수입은 17억 4천 9백만 달러 기록

<한국의 인체백신 최근 5년간 수출입 현황> (단위 : 백만 달러)

년 도		수 출	수 입	무역수지
2022년	1분기	458	329	129
	2분기	320	336	-16
	3분기	104	289	-185
	4분기	59	795	-736
	합계	941	1,749	-808
2021년		519	2,355	-1,836
2020년		173	345	-172
2019년		143	270	-127
2018년		166	273	-107

### ○ (주요 수출국) 2022년 기준 호주가 우리나라의 최대 백신 수출국이었으며, 대만, 싱가포르, 멕시코, 페루가 뒤를 이음.

※ 10대 수출국 : 호주, 대만, 싱가포르, 멕시코, 페루, 과테말라, 에쿠아도르, 콜롬비아, 콩고민주공화국, 니제르

### ○ (주요 수입국) 2022년 기준 벨기에가 우리나라 최대 백신 수입국이었으며, 미국, 독일, 스위스, 프랑스가 뒤를 이음. 2020년까지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백신 수입국이었으나 2021년부터 벨기에가 수입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.

※ 10대 수입국 : 벨기에, 미국, 독일, 스위스, 프랑스, 이탈리아, 아일랜드, 캐나다, 네덜란드, 일본

### ○ 결국,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체백신에 있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함.

- 우리나라는 인체백신에 있어 2021년까지 무역수지 적자였으나 2021년부터 말부터 코로나 19 백신 위탁생산 물량이 본격 수출되면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흑자를 기록했음.
- 그러나, 2022년 2분기부터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지고 분기별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며 결국 2022년 한해 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

### ○ 코로나19로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, 지난해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등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변이 발생에 따른 후속 개량백신 개발 지연, 경제성 부족, 개발 및 인허가 경험 부족 등으로 백신 주권에 대한 추진력을 잃고 있음.

### ○ 선진국은 유니버설(범용) 독감백신과 독감 및 코로나 동시 예방 콤보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고, 금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RSV) 백신이 최초로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종 호흡기 백신 개발과 암백신 등 혁신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된 폐렴구균 백신, 자궁경부암백신 등 고부가가치 백신개발도 이루지 못한채 선진국과 격차는 커지고 있음.

- 
-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사업,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을 통해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고, 2021년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R&D 및 투자 세액공제 근거를 신설하고, 최근 백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고 있음.
  - 그러나, 백신 후발국가로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기업 인수, 해외기술 도입 등을 할 수 있는 유인책과, 실패를 무릅쓰고 보다 과감하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성공불용자 등의 지원책 등 높은 위험과 투자가 수반되는 백신 개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- 

참고자료: 관세청, 수출입무역통계(unipass.customs.go.kr) 2023.1.16. 접근